

## 스페인 식민지 시기의 필리핀에서의 중국계 메스티조(Mestizo de Sanglay)의 등장과 역할

이 덕 훈\*

### I. 서론

동남아시아를 연구하다보면 공통점이 등장하는데 식민지를 경험했다는 것(태국은 제외) 모든 동남아 국가(태국포함)에 화인(華人: 중국계 현지인)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오늘날 華人(화인)공동체는 세계적으로도 경제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에 속한다. 특히 동남아시아 경제에서는 중국계이민과 그의 후예들이 중요한 존재이며 경제적으로 강력한 집단이라는 것은 말 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예는 필리핀에도 해당되어 인구1.5%의 화인이 도매업, 소매업계 상위 1,000사의 총 매출액 중 74%를 소유하고 있으며 국내 자본의 50%의 경제력을 갖고 있다(Nobert Dannhaeuser 2004: 237). 그러나 다른 동남아국가와 다른 특필할 만한 것은 필리핀에는 화인 말고도 중국계 메스티조 (Chinese mestizo )가 존재하고 있으며 인구도 2,28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Overseas Compatriot Affairs Commission,2009). 2013년 포브스가 발표한 필리핀 40 부호의 상위 10위의 7할을 중국계 이민 및 그 자손의 기업 그룹이 차지하고 있고 필리핀의 역사를 되돌아 봐도, 필리핀 사회에

\*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ldukhoon@hanmail.net

큰 영향을 준 인물 중에는 필리핀 독립의 영웅으로서 알려진 호세 · 리잘(Jose Rizal)과 제11대 대통령의 코라손 · 아키노(Maria Corazon Sumulong Cojuangco Aquino)와 같이 중국계 메스티조의 계보를 갖는 사람이 많다.

필리핀에서의 순수 중국인의 후손인 화인과 중국인과 원주민의 혼혈인 중국계 메스티조의 등장은 스페인 식민지시기와 깊은 관계가 있다. 스페인 식민지시기인 필리핀에서의 중국인의 등장은 독특하다. 필리핀의 스페인의 마닐라 정복이후 필리핀의 수도가 된 마닐라는 1571년 이후 마닐라-멕시코의 아카폴코로 이어지는 마닐라-아카폴코 갈레온 무역(이하 마닐라 갈레온무역)은 중국인의 등장으로 중국의 비단과 스페인 아메리카식민지의 銀과 교환으로 이어지는 세계경제시스템으로 이어져 글로벌무역의 초기단계를 이루었다(Dennis O. Flynn and Arturo Giráldez 1995:201-221).

마닐라 갈레온 무역은 스페인식민지인 마닐라와 누에바 에스파냐(멕시코)에 의해 이루어지는 무역이지만 비단은 중국복건에서 마닐라를 경유하여 스페인 아메리카식민지를 통해 스페인본국으로 전달되고 스페인 아메리카의 은이 마닐라를 통해 중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복건(福建)-마닐라-아카폴코-스페인본국으로 이어지는 삼각무역의 형태로 발전하였다(Chuan Hang-Sheng 1969:61-75).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삼각무역의 한 형태에서 등장하는 비단무역의 주체는 중국인이다. 다시 말하자면, 스페인령마닐라는 교역의 시기로 불려지는 16세기에 비단과 은의 교역이 중심이 되면서 중국의 복건에서 온 중국의 범선(Junk)이 등장하면서 중국 상인이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당시의 마닐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자와 사람, 상품, 교역등과 서비스의 공급은 복건에서 온 중국 상인의 거래에 의존하게 되었고 사람, 물건(비단), 돈(은)의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의 3대륙을 연결하는 16세기의 글로벌화를 이루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스페인령의 필리핀에 마닐라 갈레온 무역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중국인이 필리핀에 정착하게 된 배경과 중국인에서 중국계 메스티조로 변천하면서 필리핀에 정주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 II장에서는 연구 범위와 방법 그리고 마닐라 갈레온 무역과 중국인의 등장에 대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제 III장에서는 스페인 식민지의 필리핀과 마닐라 갈레온 무역과 중국인의 등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제 1절에서는 스페인 식민지 이전의 필리핀과 중국인의 무역관계를 분석하고 제2절에서는 은과 비단의 교역으로서의 마닐라 갈레온 무역의 등장에 대한 역사적배경과 스페인식민지인 아메리카의 은과 중국의 비단의 교역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제3절에서는 마닐라 갈레온 무역과 중국인의 등장과 그 역할에 대해 분석한다. 제 IV장에서는 스페인정부의 비가톨릭 중국인의 추방과 중국계 메스티조의 등장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제 V장에서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요약과 결론을 맺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필리핀은 향료는 물론, 금(金)과 은(銀)이 생산되지 않았으므로 16세기와 17세기에 돈벌이가 안 되는 군도(profitless archipelago)로서 묘사되었다(Leslie E. Bauzon 1970:172). 그러나 스페인 필리핀정부는 전략으로서 같은 스페인식민지인 남아메리카 대륙의 은과 중국의 비단의 중계무역항으로서의 마닐라를 정착시켰으며 이에 대한 후속책으로 마닐라 갈레온 무역 이 등장하였다.

중국의 명나라 말 과 청나라 초기에 해당되는 16세기부터 17세기

에 걸쳐 이루어지는 마닐라-아카폴코 무역은 중국의 은의 수요욕구와 스페인식민지인 남아메리카지역의 銀산출과 본국스페인의 비단에 대한 소비심리가 맞아 발전하였다(Chuan Han-Sheng 1975; Charles Boxer 1958). 물론, 마닐라 갈레온의 비단교역은 스페인을 통해 유럽에 전달되면서 세계를 놀라게 하였으며 육상의 실크로드와는 달리 대량의 비단의 이동은 해상의 실크로드로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해상의 실크로드가 어떠한 흐름으로 유럽에 연결되었는가는 대답은 비단과 은(銀)이었다( Debin Ma 1999).

한편, 명나라 중기에서의 마닐라로 비단을 가져다 준 복건상인의 해상무역은 마닐라 갈레온 무역기에서 필리핀 경제에서의 중국인의 역할을 크게 만들었다. 특히 비단을 통한 마닐라 갈레온의 역할이 유럽에서 크게 인식되면서 중국 상인의 마닐라에의 정착은 점점 증가하기 시작하였다(Ng Chin-keong 1971; Lourdes Diaz-Trechuelo 1996:206).

마닐라 갈레온 무역기, 즉 스페인식민지시절의 필리핀에서의 중국인의 등장은 필리핀 역사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마닐라에 정착하는 중국인의 증가는 스페인정부로부터 중국인 위협론 으로 인식되어 1603년부터 1686년까지의 기간 동안 수차례나 스페인정부의 중국인들에 대한 학살사건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Guillermo Ruiz- Stovel 2009:47-63).

그러나 이러한 박해를 거치면서 어떠한 사건과 정책이 이들을 필리핀사회에 정착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유인선(1990:321) 과 이케하다(池端雪浦 1970:48)는 스페인령 필리핀정부는 중국인의 상권 확대를 저지하고자 3차에 걸친 중국인추방령을 내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1755년 아란디아 총독의 가톨릭 강제화정책과 1762년-64년의 영국군의 마닐라 점령 시 협조한 중국인의 추방령으로 중국인 이민사

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는다(Salvador P. Escoto 2000: 209-234). 수가야(菅谷成子 2003:47-70)는 18세기 중엽의 필리핀의 중국인이민사회의 변화에 대해 가톨릭의 강제성과 결혼에 의해 스페인령 필리핀에서 중국계 메스티조(Mestizo de Sanglay)가 발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8세기 초기까지는 필리핀국적 취득의 중국계 메스티조인가 순수중국인인가 하는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었지만 18세기 중엽 스페인의 부르봉개혁의 일환으로 등장한 가톨릭강제 정책은 국적개념이 등장하면서 필리핀에 거주하던 중국인과 필리핀국적의 중국계 메스티조의 개념으로 현실적으로 부딪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宮原 曉 1997:125-139). 특히 이 과정에서 나타난 중국인들에 대한 압박과 박해로 인해 필리핀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중국인에서 중국계 메스티조로 변하게 되면서 문화적 아이덴티티에서 정치적 아이덴티티로의 이행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위크버그(Edgar Wickberg 1964:62-100)는 스페인 식민지하의 필리핀을 세계체제론의 시점에서 보고 중국계 메스티조를 ‘특별한 필리핀인’으로 보고 식민지의 사회변용의 중요한 담당자로서의 중국계 메스티조의 등장과 이들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앤더슨(Benedict Anderson 1988:3-33)은 현대필리핀의 정치엘리트는 스페인식민지 사회의 엘리트의 후손이 중심을 이루는데 이들은 스페인식의 교양을 갖고 정치적, 경제적인 신분상승을 취했으며, 그의 중핵을 이루는 것은 중국계 메스티조였고, 이들은 당시 스페인식민지시대의 정치사회문화를 교묘히 이용했다고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추(Richard Chu 2002:327-370)는 19세기 초엽에 식민지 국가에 의한 민족분류에서 중국계 메스티조라는 단어가 폐지된 후에도 개개인의 레벨에서는 중국인의 아이덴티티가 소멸되지 않은 것은 물론, 중국인의 문화적 가치가 존재하여 중국계 필리핀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항상 존재

하였다고 주장한다.

상술한 연구들을 보면 위크버그( Edgar Wickberg)는 문화인류학과 민족학의 접근방법으로 혈연과 자연의 관계를 기초로 한 중국인과 중국계 메스티조를 보았으며, 앤더슨( Benedict Anderson)은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정치적인 접근을 취하여 중국인들의 정치적인 신분상승을 분석하였고 추(Richard Chu)는 사회학적인 방법으로 중국인의 아이덴티티를 분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선행연구들이 스페인식민지시대의 중국계 메스티조를 중산층의 엘리트로서의 인류학적, 정치적, 사회적 흐름을 논하였으나 경제적인 접근으로 마닐라 갈레온 무역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마닐라-아카폴코 갈레온 무역이 어떻게 등장하였으며 마닐라 갈레온 무역에 어떠한 이유로 중국인이 참가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다.

또한 국내에서도 필리핀 화인사회의 구조와 위상(박사명 1999:185-211)과 필리핀 화교의 정착과 적응(이덕훈 1999: 21-51) 등의 연구가 존재하나 박사명(1999)은 1946년 이후의 화인 사회의 구조와 위상을, 이덕훈(1999)은 스페인 식민지부터 독립이후의 화교를 논하여 본 연구의 주제 시기인 스페인 식민지 시기의 필리핀의 중국계 메스티조를 논한 논문은 아직 없다.

따라서 어떠한 경제적 이유로 대량의 중국인이 마닐라에 등장하게 되었으며 계속되는 중국인의 박해사건에도 마닐라에 정착 하였는가를 분석하고 어떠한 사건으로 대량의 중국계 메스티조가 스페인 식민지시기의 필리핀에 등장하여 적응하고 동화 되었는가를 살피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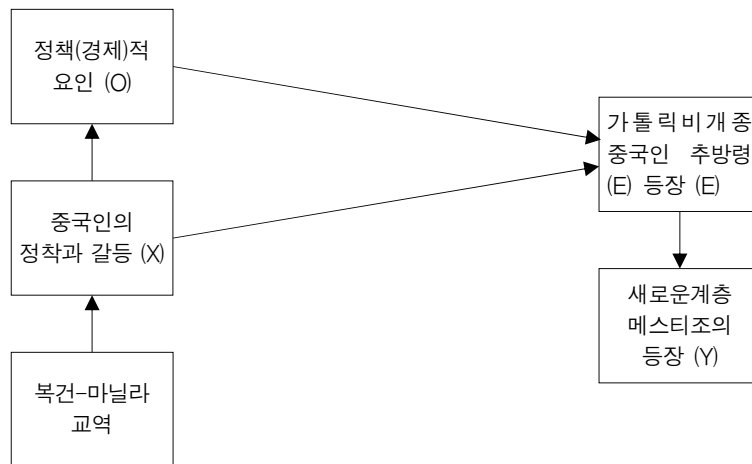
본 연구는 마닐라 갈레온 무역에서 스페인인과 인디오(필리핀현지인)사이에 경제적 이유로 등장한 중국인이 스페인식민지 시대의 필리핀사회에 적응하면서 특별한 필리핀인(중국계 메스티조)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경제적 환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그림1

참조)

중국계 메스티조의 등장에 영향을 준 것을 스페인령 마닐라정부의 정책적 요인(가톨릭 非개종중국인추방)으로 보고 이것에 영향을 준 것은 복건-마닐라의 교역으로 인한 중국인의 대량정착요인으로 보았다. 그리고 메스티조의 등장요인 및 정책적 요인에 영향을 준 중국인의 정착요인을 당시의 스페인령필리핀의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보고 이것을 분석하기로 한다.

특정한조건외의 정책적요인(O)이 중국인추방(E)에 영향을 주었고 이것이 새로운 계층으로서의 중국계 메스티조(특별한 필리핀인)의 등장에 영향을 주었다는 가정( $Y=O+E$ )에서 출발한다. 또한 스페인령필리핀에서의 중국계 메스티조의 등장요인이 되었던 복건-마닐라 교역으로 중국인의 대량정착과 함께 등장한 정착요인과 갈등요인(X)으로 보고 이러한 사회문화적요인의 해결요인이 되었던 정책적 요인(O)을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그림 1> 중국인 메스티조의 등장과 요인관계



정책적요인의 경우 당시의 스페인척령 등을 포함한 자료와 중국 인거류지역 파리안설치령과 중국인무역의 금지정책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중국인의 정착과 갈등에서 등장한 학살사건 등의 사회적 배경(X)과 스페인정부에서의 중국인 위협론 등을 표출한 경제적요인(O)을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 Ⅲ. 스페인 식민지의 필리핀과 마닐라 갈레온무역과 중국인의 등장

#### 1. 스페인식민지이전의 필리핀과 중국인의 관계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필리핀은 열대기후와 산악지역으로 이루어진 섬들의 연합국가 (7100여개의 섬)이다. 적도 약간 위쪽에 위치하며, 태평양과 중국해, 셀레베즈 해로 둘러싸여 있으며 아시아대륙의 남동해안으로부터는 약 6백마일 떨어져 있으며, 남북방향으로 기다랗게 배열되어 있다.<sup>1)</sup> 이러한 조건은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해상무역의 중심지라는 특성 때문에 다른 동남아국가와 마찬가지로 봉건국가의 출현이전에 1521년 마젤란에 의해 발견되면서 3세기가 넘도록 식민지가 되는 계기도 되었다.

스페인의 속국이 되기 전의 필리핀은 대부분 반 공동체적 (semi-communal), 반 노예제적(semi-slave) 사회체제였다. 필리핀은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한 번도 형성된 적이 없었고, 전 제도에 걸쳐서

---

1) 북쪽으로는 중국, 남쪽으로는 인도네시아 및 북 칼리만탄과 접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타이완 중국, 일본이 있고 동쪽으로는 미크로네시아 가 있으며 미국과는 태평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국이고 남쪽으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등과 면해 있고 서쪽으로는 베트남 과 연결되어 있어 아시아의 무역항으로 중요하게 등장한다.



가장 전형적인 사회조직은 바랑가이(barangay)라는 촌락공동체였다. 이것은 기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단위였고, 그와 비슷한 여타의 조직들에 대해서 독립적이었다.

1400여 년 전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당(唐)나라(618-907)는 아시아 대륙의 지배자에서 아시아에 군림하는 세계 제국으로 비약시켰다. 당의 전성기 때에는 페르시아, 아라비아를 포함한 세계각지의 상인들이 모여 세계상업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당시 당의 상인들은 대외 무역의 발전과 함께 해외로 유출되어 동남아시아나 북아프리카 까지 진출하였다. 세계에서 唐을 모르는 나라가 없었으며 ‘당’은 중국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지금까지도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인을 가리켜 ‘당인(唐人)’이라 하고 화인들이 모여 사는 차이나타운을 ‘당인가(唐人街)’라고 하는 것을 보아도 당나라시기에 중국인의 해외진출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중국인의 동남아시아이주가 문헌사료에 처음 등장한 것은 북송시대의 1119년에 주욱(朱彧)이 편찬한 평주가담(萍州可談)인데(成田節男 1942: 49),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에 대해서는 주변(住蕃)으로 나와 있다.<sup>2)</sup> 12세기 전후 이미 중국인은 해상무역을 남중국해에서 동남아까지 확대하여 이 지역을 남양(南洋)으로 불렀다(Anthony Reid. ed 1996:10-17). 중국에는 해외의 침략이나 국내의 전란으로 백성은 고향을 떠나 새로운 생활에의 정착이 필요했고 또한, 전쟁나면 외국으로 피난하면서 전란과 가난을 극복하는 전통이 있다. 중국의 연안지역에서는 해외로 이주하는 것을 走水(주수), 북방에서는 闖關東(툼관동)이라 한다(Li Ling 1997:23-47). 특히 1279년 몽골이 중국을 정복했을 때 많은 중국인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으로 도망하였는데 미얀마와 라오스는 운남 출신이

2) 廣州에서 몇 년 지내는 외국인을 住唐으로 표현하였으며 해외에 가서 그해에 돌아오지 않는 중국인을 住蕃으로 표현하였다

캄보디아, 베트남에는 광서출신이 많았으나 바다를 건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으로 가는 경우는 대개 복건과 광둥출신이 많았다(Min Zhou 2006:161-190).

또한 중국인의 해외진출에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중국의 명나라 초기에 있었던 정화(鄭和)의 대원정이다. 무슬림 가문 출신의 환관 정화는 영락제의 명령을 받아 1405년 5월부터 1433년 7월까지 160여척의 배를 이끌고 모두 7차례에 걸쳐 인도양 세계를 탐험했는데, 연인원 2만7000명을 통솔하여 18만5000km의 거리를 항해한 이 원정은 이 지역을 명나라의 세력권에 들어오게 하였으며 많은 중국인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정화의 원정 당시 명나라는 60여 척의 배를 이끌고 세 차례에 걸쳐 필리핀을 정벌하기도 했다(필리핀 개황 2011:10-11). 일부학자들은 이시기에도 중국인의 필리핀정착이 이루어 졌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화의 원정도 1430년대 명의 영락제가 죽고 홍희제가 즉위하며 유교의 정치가 이루어지면서 환관들의 정치에서 관료정치로 변화 되었다. 따라서 환관이었던 정화도 권력에서 멀어지면서 이후의 중국은 해양보다는 대륙에 한정함으로써 동남아등 외부세계에 눈을 감게 되었다.

1500년대 초기, 유럽이 동남아에 진출하기 전에 중국인이 동남아 항구도시를 거점으로 활동하여 중국산의 비단, 도자기 등을 교역했지만 마닐라, 말라카 등 동남아항구도시에 계절풍을 이용한 범선무역이었던 때문에 자연적으로 중국인이 정착하게 되었다(庄國土 2001:40-45).

명나라 장섭(張燮)의 "동서양고(東西洋考) 5권" 에 의하면 정화 대원정 이후 필리핀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있었고 필리핀의 마닐라에는 장기체류하는 중국인을 압동(壓冬)이라 하였는데 (宮原 曉 2013: 第5章), 압동은 마닐라에서 겨울을 보내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었다. 압동은 3-4달의 장기체류를 필요로 한 중국인 무역상으로 간주된

다. 이시기의 경우는 마닐라에 장기체류하는 중국인은 있었으나 정착하는 중국인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 2. 은과 비단의 교역으로서의 마닐라 갈레온 무역

필리핀을 처음으로 유럽에 알린 사람은 스페인 왕실의 지원을 받아 세계 일주에 나선 포르투갈의 항해가 마젤란(Ferdinand Magellan)이었다. 마젤란이 1521년 필리핀의 사마르(Samar) 섬에 상륙한 이래 새롭게 등장한 레가스피(Miguel López de Legazpi)는 1566년 바랑가이 족장들의 대부분을 장악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비사야와 루손에 스페인의 동남아 최초 식민 정착지를 ‘가톨릭의 십자가’ 아래 구축 하게 된다.

이 섬의 국명을 당시 스페인의 국왕이던 펠리페 2세(Felipe II)의 이름을 따서 필리핀(Philippines)으로 정하고, 마닐라에 총독을 두어 이후 333년간이나 지속되는 식민 지배를 시작하게 된다.

레가스피는 초대 필리핀총독(1565-72)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필리핀에서는 스페인이 기대했던 향신료와 금, 은 등의 귀금속 광산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스페인 마닐라 정부는 식민지통치에 의한 세금징수 비용만으로는 가톨릭포교와 원정, 전쟁 등의 비용을 충당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스페인의 활동을 경제적으로 지원한 것이 마닐라 아카폴코를 이은 마닐라 갈레온 무역이었다(池端雪浦編 1999:100).

스페인 식민지통치하의 필리핀제도에 있어서의 갈레온 무역기(1565년-1815년)의 시기에는 국제무역의 탄생으로 인식될 만큼 동서양의 물품이 교차 되었던 시기이다. 특히 이시기에 있어서의 중국인의 무역 활동과 정착은 생존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하겠다. 또한 무역이익을 보고 증가하는 중국인과 이시기

의 마닐라 스페인정부와는 갈등이 나타났다.

마닐라 갈레온(Manila Galleon)무역은 1565년부터 시작하여 1815년까지 250년에 걸쳐 매년2척(후기에는 1척)으로 편성되어 스페인에게 엄청난 이윤을 남겼다(伊藤禎一 1992:168). 마닐라총독들은 마닐라—아카풀코 무역범선(Manila-Acapulco trade Gallenon)의 선주로서, 또한 상인들에게 무역권리를 분배해주는 행정관료로서 짧은 재임기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1565년에 최초로 마닐라 갈레온의 초기 개척선으로 인식되고 있는 산 페드로호(號)가 계피(cinnamon) 등의 향신료를 싣고 멕시코의 누에바 에스파냐(뉴스페인)로 향했다. 그러나 계피 등의 향신료는 그다지 환영을 받지 못했는데 6년이 지난 1571년에 필리핀의 수도를 세부섬에서 루손의 마닐라로 이전하면서 중국의 비단이 주요상품으로 인식되면서 마닐라 갈레온 무역은 국제무역으로 이어지게 되었다(Thomas Baker 2004:16).

또한 선교사 우르다네타(Andrés de Urdaneta)가 태평양북부(북위 39도30분)까지 역상해서 편서풍으로 3개월 만에 걸쳐 멕시코의 아카풀코에 도착하여 마닐라 갈레온의 동쪽항로를 발견한 것은 마닐라와 멕시코의 아카풀코를 잇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柳沼孝一郎 2012:215).<sup>3)</sup> 이 항로는 16-18세기에 동서양의 무역의 가장 중요한 루트로서 인정되고 있다. 마닐라 갈레온 무역은 사실은 복건-마닐라-아카풀코로 이어지는 해상교역이었다. 그중 마닐라-아카풀코 교역이 마닐라 갈레온 무역으로 불리고 있으며 이 교역에 대한 이익이 스페인령필리핀의 버팀목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삼각무역의 형태에 대해 1571년에 스페인이 중국과의 무역을 위해 마닐라를 건설하기 전 아메리카와 아시아간의 교역루트는 없었다고 하면서 지구상

3) 멕시코의 아카풀코에서 마닐라로 향하는 서쪽항로(귀로)는 동쪽항로처럼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고 무역풍으로 마리아나제도를 통과하여 필리핀으로 귀환하였다.

에서의 글로벌화는 1571년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Dennis O. Flynn and Arturo Giráldez 2006:19-33). 마닐라 갈레온의 시초를 1565년보다 중국의 비단과 남아메리카의 은(銀)의 교역이 시작된 1571년을 마닐라 갈레온의 시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이덕훈 2014:268).

당시에 은이 세계무역의 중요한 역할을 한 것과 은으로 이어지는 유럽과 중국의 무역을 아담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Adam Smith 1776:207).

“신대륙의 은이 중심상품의 하나로 생각된다. 이것에 의해 구세계의 양단 인 유럽과 중국 사이의 무역이 이루어져 세계에서 2개의 멀리 떨어진 지역은 이렇게 해서 두꺼운 파이프를 서로 확실하게 연결되고 있다.”

상술한바와 같이 신대륙 아메리카의 은이 필리핀에 유입되면서 마닐라는 아시아와 아메리카 그리고 본국스페인을 잇는 중개지 역할을 하게 된다. 1573년에 2척의 갈레온 무역선이 아카폴코에 중국 비단 712상자, 도자기 22,300개를 운반하였으며 1574년에는 6척, 1575년에는 12척의 중국의 정크선이 마닐라에 상품을 날랐다(山田義裕 2011: 11-12).

마닐라 갈레온 무역(1591-1780년)의 수입을 평균적으로 계상해보면 필리핀 1년 경상비의 10-15% 에 해당할 정도의 막대한 금액이었다(Carla Rahn Phillips 1990:98). 이 금액의 중심은 유럽의 중국의 비단 수요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의 비단은 세계에서 애호되는 상품이지만 값싸고 질 좋은 비단은 오직 중국에서만 생산할 수 있었다.

중국이 은을 수입하게 된 배경에는 14세기 말 명의 지폐(寶鈔)를 분위화폐로서 표준 교환수단의 삼았던 명나라 화폐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당시에 보초(寶鈔, baochao)의 과도한 발행으로 인하여 중국지폐의 가치는 동이나 은과 같은 대체 통화와 비교해 폭락했다.

중국의 은에 대한 수요는 명나라가 1570년 ‘단일화폐’(single-whip)인 일조편법(一條編法)개혁을 추구하면서 각종의 세금을 銀으로만 지불하는 세제가 확립되었다. 중국이 당시 세계인구의 1/4의 대국이며 중국주위의 국가들이 조공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일조편법제도는 아시아지역은 물론, 인도, 이슬람, 그리고 유럽까지 이어졌다고 하겠다.(Hamashita Takeshi 1994:97) 거대 경제국인 중국이 은(銀)을 결제수단으로 함으로서 중국에서의 은의 시장가격은 아메리카, 일본, 유럽 등의 국가보다 훨씬 높게 상승하는 원인이 되었다. 16세기 초, 중국에서의 금은비가(金銀比價)는 1:6으로서, 인도(1:8), 페르시아(1:10), 유럽(1:12)등과 비교해보아도 중국의 은의 가치가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금의 상대가격이 낮고 은의 상대가격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높았던 중국으로 은이 몰려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Richard von Glahn 1996:127).

1393년 명나라정부는 뽕나무 재배 농가에는 전부 토지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베풀었는데 이로 인해서 뽕나무 재배 농가가 증가하면서 중국의 비단 생산량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150년이 지난 1550년경의 비단의 대표적도시인 소주(蘇州)는 비단에 종사하는 인구가 약 50만 명에 도달하였을 정도이다(William S. Atwell. 1977 22-27). 명왕조도 황실비단공장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청왕조가 들어서면서 비단산업은 국가산업으로 인식될 정도로 발전한다. 소주의 황실비단공장도 명나라 때는 173개의 직기(織機, 베틀)와 504명의 직공(織工)이 있었지만, 청(淸)왕조로 바뀐 1685년이 되자 800개의 직기와 2,330명의 직공으로 네 배나 증가하였다. 그리고 비단산업의 3개 중심도시인 항주와 남경, 소주를 합치면 1,863개의 직기와 7,000

명의 직공이 있었다(Shih Min-Hsiung 1976:40-41). 이러한 명말청초의 중국의 비단산업의 발전을 서양의 산업혁명전에 보여준 세계의 근세 산업혁명으로 보고 있다(Chuan Hang-Sheng 1975: 100-101). 생산량으로서도 거대했던 점은 17세기 포르투갈의 역사학자인 보카로(Bocarro)는 17세기의 중국의 비단생산량은 매년 2,500톤이 생산되었는데 그중 1/3 인 800톤가량이 해외로 수출되었다고 주장한다(George Bryan Souza 1986:46).

이처럼 거대시장인 중국은 비단을 독점생산 할 수 있었고, 스페인 제국은 은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은과 비단을 매개로 한 스페인과 아시아간의 교역 패턴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야마다(山田)는 1493년에서 1850년 사이에 아메리카 스페인식민지(멕시코:63,657톤, 볼리비아:35,064톤, 페루:29,432톤) 에서 약12만 8,153톤 의 은이 생산되었는데 이 수치는 당시 세계 은의 생산량의 80%를 차지하였다고 주장하였다.(山田義裕 2011:22)

한편, 누에바 에스파냐에서는 은의 생산비용이 낮아지면서 중국의 비단은 더욱 각광을 받게 된다. 1579년에 누에바 에스파냐에서 비단 원사의 가격은 40년 전의 가격과 비교해 볼 때 거의 7배 이상 상승한다. 당시 마닐라에서 누에바 에스파냐까지 비단을 보내면서 얻게 된 평균 수익은 투자액과 비교해 100%에서 300%까지 이르렀다(kim Dong-yeop 2012:67).

꿈의 무역으로 인식되었던 마닐라 갈레온 무역도 쇠퇴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는 스페인 본국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7세기 까지 스페인 제국은 중국의 은 수요가 급증하면서 은 가격의 상승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지만 18세기 중반이 되면서 은의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스페인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즉, 아메리카의 은이 수입되면서 스페인국내의 은의 가치가 하락하여 은으로 거둔 세금의 수입이 구매력하락으로 이어져 스페인왕실은 경제

적회복의 불능상태에 빠지게 되었다(Andre Gunder Frank 1998:390).

또한, 1762-64년의 영국군의 마닐라점령은 스페인제국의 쇠퇴를 암시했고(伊藤禎一 1992:169), 세계적 자유무역의 흐름에 의해 1778년에는 스페인은 "자유 무역 칙령"을 내려 식민지와 식민지, 본토와 식민지 사이의 무역이 전체 자유화되고 대부분의 항구가 개항되면서 아시아에 상품을 공급했던 스페인의 특권은 사라지고 경쟁력도 잃게 된다(서성철 2013:148). 이미 이 시기 산업혁명시기에 들어간 영국과 해상강국으로 등장한 네덜란드가 등장하면서 마닐라 갈레온 무역도 시들해지기 시작한다.

마닐라 갈레온 무역은 18세기 말엽 이후에는 은과 비단의 세계적 흐름보다는 생태학적 교역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다. 18세기 중엽에 이르면서 중국의 인구가 극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식물의 생태학상의 변화에 의해 가속되었다. 즉, 마닐라 갈레온 무역에 의해 누에바 에스파냐(신 스페인)에서 가져온 감자, 땅콩, 옥수수 등의 구황작물이 마닐라-복건을 거쳐 중국에 유입되면서 중국의 기근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상해근처에서는 땅콩이 재배되었고 복건의 해안지방에서는 감자가 화남지방에서는 옥수수가 대량으로 재배되었던 것이다(Alfred W. Crosby 1972:199).

이처럼 은의 시대에 시작된 서구인과의 만남과 접촉에 의한 서반구사회(아메리카)와의 교역이 은과 비단보다는 식량의 교역으로 변하면서 중국인 및 아시아인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었다. 18세기 중엽에 이르면서 아메리카에서 아시아지역에 가져다준 식량의 교역을 포함한 생물의 이동을 맥네일(John McNeil)은 “마젤란 교역”으로 부르고 있다(John R McNeill 1996:665-96).

18세기 후반기부터 마닐라 갈레온 무역은 은과 비단보다는 보다 수익률이 높은 설탕, 대마, 코프라(copra; 야자 열매 말린 것), 인디고(indigo; 靑藍) 및 그 밖의 여러 작물의 수출로 대체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수출은 여러 나라의 무역선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 경향은 19세기 전 기간을 관철한다.

### 3. 복건-마닐라무역과 중국인의 등장

식민지 필리핀의 최고법령이라 할 수 있는 레코필라시온(Recopilacion)에 의거하여 필리핀에 거주하는 스페인들에게만 갈레온 무역에 참가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이 주어졌다(박승우 2003:7-8) 스페인 본토의 스페인인, 멕시코나 다른 아메리카 식민지의 스페인들은 마닐라-아카폴코 무역에 참여할 수 없었다. 당시 필리핀에 있던 상인들은 자기들만의 독점적인 선주연합체를 가지고 있었고 그 조직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일종의 무역이사회인 강력한 레알 콘술라도(Real Consulado)를 만들어 무역을 통제했다. 이 무역이사회는 마닐라의 부유한 사람들과 그리고 스페인 사람으로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및 교회, 군대, 또는 식민정부를 대변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물론, 엔코멘테로스(encomenderos)라고 불리는 평민들도 스페인 법의 규정에 따라 이 무역에 종사할 수 있었다.(서성철 2013:140).

한편 갈레온 무역기의 필리핀의 스페인들의 무역네트워크의 직접적인 상대는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중국인이었다. 그 이유는 레코필라시온에 명시된 원주민의 주거제한규정-교구 수사신부의 허가 없이 자신이 거주하는 푸에블로를 떠날 수 없다는 규정-으로 묶였기 때문이다. 이들 중국인들은 스페인의 식민지배 이전부터 마닐라 근처의 바랑가이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1570년 대 갈레온 무역이 시작되면서 그 규모가 더욱 커졌다(박승우 2003:17).

복건연안지방의 중국인들은 마닐라로 수도를 이전한 이후, 중요한 교역상대가 인디오에서 스페인인으로 전환되면서 그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주는 한편, 마닐라 갈레온 무역이 개시되면

서 비단, 도자기 등 멕시코의 아카풀코에 중계수출 될 상품을 취급하게 되면서 중국인의 정착수도 증가한다. 마닐라는 중계항으로 발전하여 1580-1600년에 걸쳐 중국인의 마닐라 교역이 증가하면서 마닐라 갈레온 무역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된다. 이 시기의 중국인들의 마닐라 도항에 관한 자료가 있는데 1580년대에 매년 30-40척의 범선(정크)이 복건, 광둥에서 마닐라로 오게 되면서 이들 중국범선은 3월 초에 출발하여 계절풍에 의지하여 15-20일간에 마닐라에 도착하여 남서 계절풍이 불기 시작하는 5월경에 귀환하였다고 한다(松竹秀雄 1989:32).

필리핀내의 중국인 수 증가에 대해서는 레가스피에 의한 스페인 통치가 시작한 1571년에 150인(이해에만 마닐라) 1588년에 1만 명, 1603년에 3만 명, 1748년에 4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통계가 있다. (周南京;86) 이처럼 중국인이 증가한 것은 마닐라 갈레온 무역의 성립에 의해 비단 공급을 위한 중국 복건성의 범선무역이 마닐라와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菅谷成子 2012:439). 스페인 식민지배 하의 마닐라는 중국의 남지나해 교역권의 가까운 항구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지만 당시의 스페인세계와 중국세계의 금·은 교환비율의 차를 배경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복건상인이 주재하는 범선 교역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국제항구로서의 면목을 갖추게 된다.

필리핀의 중국계 인구를 통계적으로 명백히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약 80-90%가 복건성(福建省)출신이며, 나머지 10% 정도가 광둥성(廣東省)출신이므로 복건계 출신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복건성 출신 중에서도 진강(晉江, Jinjiang)출신자가 많아 진강(晉江) 출신의 비율은 필리핀 화교전체의 2/3라는 견해도 있을 정도이다(庄國土 2011:2). 포부스의 필리핀 40부호 랭킹 중 최근 몇 년째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헨리 시(Henry Sy, 중국명: 施至成)도 진강출신이며, 2위의 루시오 탄(Lucio Tan, 중국명: 陳永裁)도 진강근처 사람이다. 진강

이 필리핀에서는 교향(橋鄉, 화교의 고향)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것은 원래부터 이 지방은 사람이 많으나 경지가 적어 식량이 부족하여 마닐라-복건교역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지리적, 경제적 배경이 있었다. 필리핀중국계 이민 중에 진강출신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이러한 배경에 기인하는데, 한 지역 출신자의 비중이 이렇게 많은 것은 동남아 화교이민사에서도 매우 진기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마닐라 갈레온 무역은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각국과 필리핀 그리고 스페인령 멕시코를 잇는 삼각무역의 형태를 띠는데 주로 복건 출신의 중국인들의 비단, 도자기 등의 물품이 멕시코나 페루에서 생산되는 은과 교환되고, 은과 비단은 스페인 본국으로 이동하게 된다(Onofre D. Corpuz 1997:39-40). 마닐라 갈레온 무역시기에 필리핀에 정착한 민족이 중국인(Sangley) 들은 초기부터 필리핀 원주민들과 스페인 식민정부, 그리고 가톨릭과 이슬람교의 중간에서 사업을 하였으나, 식민행정에 간섭하지 않은 중간상인의 역할을 하였다. 중국인은 마닐라 갈레온 무역과 스페인 마닐라정부의 유지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인 것과 동시에 위협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마닐라 정부는 성벽도시 인트라무로스(Intramuros)의 외측에 중국인의 거주 지역인 파리안(Parian)을 건설하여 중국인의 이동금지를 위한 관리와 징세의 목표로 한 정책을 취했다. 1594년에는 마닐라의 비논도(Binondo)지구에 중국인의 가톨릭 개종자를 위해 새로운 중국인 거주지역이 만들어 졌다(De Viana 2001:10-18). 그렇지만 중국인 이민자에 대한 개종사업은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가톨릭신앙을 강제하지 않았으며 중국인 이교도집단으로서의 새로운 거주 지역으로서 등장 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점점 무역이 발전하면서 17세기의 교역시존에는 중국인들이 스페인인 인구를 능가하여 당시의 동남아교역권에서 최대 규모의 2만 명 정도의 중국인이 정착하였기 때문에 마닐라는 당시의 세계최대의 차이나타운이 되었다.

스페인 통치자들은 중국인 상인의 숫자가 급증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중국인 이민자들에게 세금을 과하거나 이교도로서의 압박이 계속되자 중국인이민자들은 10수년간격으로 봉기를 일으켜서 이에 대응하였다. 1574년의 林鳳봉기, 1593년의 潘和五 봉기, 1603년의 마닐라 봉기, 1639년부터 40년에 걸친 칼람바(calamba)봉기, 1686년의 丁哥봉기로 이어져 1662년, 1687년, 1762년으로 스페인의 통치시대의 전기만으로도 6회의 중국계이민의 학살사건이 발생하였다(小林幹夫 1992:10-18). 원인은 중국인의 급격한 증가 때문인데 증가이유로서는 지배층인 스페인사람의 대부분은 작업노동을 경멸했고 원주민은 이러한 작업노동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인이 거의 모든 직업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Edgar Wickberg 1964:8).

이러한 상황을 Antonio Morga 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중국인에 대해 논하고 있다(Antonio Morga, 神吉敬三 譯 1973:349).

“정말로 중국인 없이는 마닐라는 존재 할 수 없다. 이들은 모든 무역과 사업에서 짠 임금에도 매우 부지런하게 일하고 있다.”

상술한 것을 보더라도 스페인통치하의 마닐라정부에 있어서 중국인 상인은 이미 중요한 존재가 되어 스페인 식민정부자체가 완전히 중국인을 없애지는 못했기 때문에 여러 번의 박해에도 중국인은 증가하였다. 1650년의 마닐라의 중국인은 15,000명으로 (池端雪浦·生田滋 1977:33), 당시의 마닐라에 스페인사람이 7,350명, 현지인디오가 20,124명으로 조사된 것을 보면 중국인인구가 스페인인보다 2배 정도 많았음을 알 수 있다(John Leddy Phelan 1959: 178).

한편, 17세기 중엽에 금은비가(金銀比價, 금과은의 교환비율)이 세계적으로 평균화되면서 신대륙시장에서의 생사와 비단 등이 종래의 경쟁력을 잃어버리면서 3대륙을 오가던 갈레온의 무역의 세계가 매력이 사라지면서 마닐라의 경제력도 상실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마닐라 갈레온 무역을 지탱해오던 복건상인의 마닐라교역도 축소되면서 마닐라 거주 중국인들도 감소하였다. 또한 청나라가 1661년에 대만의 정씨 정권을 제압하기 위해 해안 사람들을 내륙으로 강제로 이동시켜 그들의 잔존세력을 돕지 못하게 하는 천계령(遷界令)은 단순히 바다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수준을 넘어, 백성을 내지로 옮기는 강제 이주정책 이었다. 이 천계령에 의해 마닐라를 왕래하던 중국 범선은 타격을 받았고 마닐라 갈레온 무역 역시 심한타격을 받았다(岩波書店 2001: 223). 이러한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마닐라의 중국인의 거주허가세와 사람 수 라고 할 수 있다.

<표1> 마닐라의 중국인의 거주허가세 징수액

년 도	징수액(페소)	인 수
1620	16,973	2,121
1630	87,606	10,950
1635	147,000	18,376
1637	190,000	23,750
1661	60,221	7,527
1671	17,884	2,235
1680	16,975	2,122
1690	18,441	2,305
1700	22,975	2,849
1706	31,335	3,917

자료: 岩波講座,東南アジア史第4卷』岩波書店、2001年, p224

<표 1>의 마닐라 중국인의 거주허가세 징수액에서 나타나듯이 1637년에는 23,750명이 마닐라에 거주하였으나 1661년에 천계령(遷界令)이 발표되면서 마닐라 거주 중국인의 수는 7,527명으로 약1/3로 감소한다. 이것이 1671년에는 1637년의 1/10도 안 되는 2,235명으로 1680년에는 2,122명으로 감소하였다. 다시 중국과 필리핀무역이 전개된 것은 1684년 천계령(遷界令)이 해제되면서 복건상인들의

움직임으로 마닐라의 교역은 발전하였고 다시 중국인 이민자가 정착하면서 1706년경에는 마닐라에 중국인이 4,00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태로 1750년경까지 4,000명 정도로 유지되었는데 그 이유는 사탕수수농장의 확대를 위한 인도네시아 바타비아(Batavia)의 등장으로 복건이민들이 바타비아로 향했고, 타이완이 정성공(鄭成功)의 항복이후 복건성에 편입되면서 새로운 이민지로서 타이완이 부상했기 때문이다.

마닐라 갈레온 무역에서의 중국인의 등장은 생사와 비단으로 마닐라 갈레온 무역을 발전시켜 근세의 글로벌무역의 초기단계까지 이루었지만 또한 중국인의 정착과 거류가 스페인령마닐라 정부를 불편하게 하여 6번의 학살사건이 일어나 중국인의 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여 중국인 위협론을 감지하는 정책이 등장하게 된다.

#### IV. 脫중국화로서의 가톨릭개종과 중국계 메스티조의 등장

##### 1. 스페인정부의 정책: 중국인에서 중국계 메스티조(특별한 필리핀인)로

스페인의 중국인 정책의 핵이 되었던 것은 1581-82년에 걸쳐 상점과 중국인지정거주구역(ghetto)으로서 설치되었던 마닐라의 파리안(parian)이었다. 비개종(非改宗) 중국인이 거주했던 파리안은 1580년대에 소매업과 도매업은 물론 식당, 패스트푸드와 비슷한 음식물 판매가 있었다고 한다. 이는 마닐라가 중국인, 스페인인 모두가 독신 남성인 많은 부자연스런 사회였다는 사정과 이미 중국인이 차이나타운처럼 중국인점포가 500여개, 전성기에는 1,000개를 넘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Alberto Santamaria 1966:77-78), 마닐라에서 가장 변화한 지역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스페인령마닐라 정부는

중국인을 외국인(이방인)으로서 설정하여 이동 거주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였지만 1603년의 중국인폭동 이후 대학살사건으로 이어지면서 돈이 있어도 상품을 구입할 수 없어서 마닐라의 도시생활을 중국인들이 세부사항에 이르기까지 지탱했던 점을 모루가(Antonio Morga)는 지적하고 있다(Antonio Morga, 1973:259). 마닐라의 도시생활에 이미 중국인이 없어서는 안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 시기는 17세기 초기라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저렴한 노동력은 중국본토와 스페인사이에 존재하는 은가격의 차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Rafael Bernal 1966:65).

1612년에는 비(非)개종 중국인에 대해서 체류세(滯留稅)가 제도화되어 연간 8페소가 부과되었으나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639년의 라구나(Laguna)의 칼람바(calamba)의 중국인 노동자의 봉기는 말라리아 등의 풍토병으로 사망한자가 다수 생기면서 각종세금의 완화를 관리자에게 부탁했는데 거절당하면서 봉기하였고 이는 대량학살사건으로 이어졌고(周南京 1993:83-84), 계속되는 중국인 봉기로 스페인령마닐라정부는 중국인에 대한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을 감지하게 된다. 그 이유는 마닐라의 모든 업종에 중국인이 진출하게 되면서 중국인들이 필요하면서도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Edgar Wickberg 1964:11).

좀 더 자세히 논하자면 중국계 이민노동자는 어부, 정원사, 사냥꾼, 織工, 벽돌공, 석회제조자, 목수, 제빵업자, 정육점, 양초제조자, 페인트공, 은세공업자, 제과점, 약제사, 포목점, 조각가, 식당 등 마닐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직업을 차지하고 있었다(Robert R. Reed 1967:137). 1637년부터 1638년까지 마닐라에 체류했던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ian)수도회의 신부였던 세바스티앙 만리케(Sebastio Manrique)에 의하면 중국인들은 장사하기 위해서는 지옥까지 간다고 했으며, 은(銀)은 피이다(Plata es sangre)라는 모토를 사

용했을 정도라고 한다(Guillermo Ruiz-Stovel 2009:59). 이러한 상황은 스페인정부와 인디오사이에 반중국인 감정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중국인에 대한 박해로 이어졌고 중국인의 대응으로 대량학살사건으로 이어져 1639년에만 중국인 30,000명중 20,000명이 살해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Guillermo Ruiz-Stovel 2009:58-59). 중국인이 살해되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1650년에는 마닐라에만 15,000명의 중국인이 7,350명의 스페인인보다 2배 정도 많았다(John Leddy Phelan 1959:178). 1637년보다 5,000명이 감소한 것은 1639년의 중국인학살사건에 의한 것으로 기인한다.

한편 이시기의 스페인 본국에서는 저물어가는 스페인제국을 부활하기 위해 부르봉의 개혁이 등장하였는데 부르봉개혁의 배경에는 1700-1713년의 왕위계승 전쟁으로 스페인 왕실이 합스부르크 왕조에서 부르봉 왕조로 바뀌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關哲行, 立石博高, 中塚次 2008). 부르봉 왕조의 카를로스 3세는 18세기 중엽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던 스페인식민지에 대한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르봉 왕조의 개혁'이라는 개혁조치를 시행했다. 이것의 주요 골자는 식민지의 행정 및 경제체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왕실의 수입을 증대시키고 식민지에서의 통치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었다(Bernardo Astigueta 2000:60-61).

오반도(Jose Francisco de Ovando: 재임1750-1754) 총독이 부임하면서 중국인의 가톨릭개종을 위한 非가톨릭 교도를 추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1754년 필리핀의 새로운 총독으로 아란디아 총독(Pedro Manuel de Arandia: 재임1754-1759)이 부임하면서 가톨릭 개종보다는 경제적인 면에 역점을 두면서 더욱 강한 정책이 등장하였다. 아란디아 총독은 당시의 필리핀의 경제적 침체의 원인을 마닐라 갈레온 무역과 중국인에게 경제활동을 전면적으로 의존한 필리핀의 식민지경제체제로 인식하였다. 무엇보다도 중국인에 의존한 식



민지경영, 즉, 마닐라 갈레온 무역체제에서 탈퇴함으로써 은(銀)의 중국에의 유출을 방지하는 기본방침이 채용된 것 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우선 필리핀에서의 중국인의 상업 활동을 제한하는 한편, 스페인인과 인디오 의 상업 활동을 장려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1755년 아란디아 (Pedro Manuel de Arandia) 총독이 실시한 비가톨릭교도 중국인의 추방은 중국인 이민사회에 엄청난 전환을 가져다주었다(菅谷成子 2000:439). 1755년부터 1756년 에 27장이나 되는 조례(Ordenzas)를 공포하였는데 이 조례는 임시체류자인 중국인의 거래내역을 정하고 가톨릭교도인 중국인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 조례는 일시체류자인 이교도 중국인과의 거래를 상세히 정하여 이러한 이교도 중국인의 일시 체류자와 가톨릭교도 중국인정주자의 관계를 규정하여 공포되었다(菅谷成子 2000:437-439). 1755년 6월30일을 기준으로 515명은 세례를 받았고 1,108명은 세례를 받기 위한 가톨릭교리 공부를 위해 잔류했고 2,070명은 마닐라에서 추방당했다(John Foreman 2010:4). 그리고 매년 3,000-4,000명 정도의 비가톨릭 중국인들이 파리안(parian)을 떠났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추방정책이 강하게 작용한 것은 1762-63년의 영국의 마닐라 점령시기에 협조한 중국인들을 가톨릭교도와 비 가톨릭에 관계없이 1764년에는 6,000명을 추방한 것이다(Salvador P. Escoto 2000:214-216).

아란디아 총독은 식민지경제의 실권을 스페인사람 중심으로 하기 위한 제1단계로서 식민지경제의 중국인에의 의존을 감소하기 위한 것은 물론, 식민지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인구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가톨릭의 개종을 의무화 시켰던 것이다. 제2단계로 중국인 이민자가 담당하였던 상품유통부문에 스페인인, 중국계 메스티조, 인디오도 참가시켜 스페인이 주도하는 식민지경제를 세우려고 하였다. 또한 제3단계로 식민지경제를 위하여 16세기 이후 중국과의 범

선무역을 계속 유지시켜 무역으로 왕래하는 중국인을 이교도(infieles)와 가톨릭교도(cristianos)와 구분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방침에 고민하던 중국인 이민사회는 생존을 위해 식민지 지배의 정통성 원리였던 서양의 종교인 가톨릭을 수용하여 가톨릭신자로서 교회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세례, 혼인을 통해 크리스찬이 되면서 스페인국왕의 신하로서 식민지사회의 구성원이 되었다(Salvador P. Escoto 2000:224).

아란디아(Pedro Manuel de Arandia) 총독의 비 가톨릭교도 중국인의 추방정책은 가톨릭교도 중국인 이민자와 이교도 중국인 체류자와는 엄격히 구분되어서 행했기 때문에 스페인령 필리핀의 중국인은 전부 가톨릭신자로서의 가톨릭화가 이루어졌다(菅谷成子 2005:20-24).

아란디아 총독의 비 가톨릭 중국인 추방령 이후 가톨릭으로 개종한 중국인은 이념적으로 스페인국왕의 신하가 되어 스페인 식민지 필리핀의 정통적인 구성원으로서 필리핀인(중국계 메스티조)이 되고 비개종자 중국인은 스페인국왕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이교도 중국인(sangley infiel)으로서 식민지사회에서 여러 가지 제한을 받았다. 중국계 메스티조(Mestizo de Sanglay or Chinese mestizo)는 중국인을 아버지로 현지의 필리핀인(인디오)어머니를 가진 중국계의 혼혈을 지칭하는데, 이러한 존재가 세제상의 구분으로서 명확히 규정된 것은 1755년 이후였다(PNA 16-5-5). 이러한 흐름은 중국인 이민사회 자체가 가톨릭신앙하의 현지여성과 가톨릭식 결혼을 통해 중국계 메스티조를 산출하는 모태로 변화되면서 가톨릭지배하의 현지사회에 융합화를 이루게 된다. 그 결과 중국인수는 현저하게 감소하고 그들의 주거지가 마닐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중국인의 경제활동도 일시 쇠퇴하였다. 스페인의 대필리핀 정책이나 중국인의 추방령 등의 실시에 있어서 중국인과 필리핀인의 혼혈인 중국계 메스티

조는 필리핀인에 준하는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필리핀의 국내경제는 일시 중국계 메스티조들이 장악하게 되었다(유인선 1990: 321).

아란디아 총독의 비 가톨릭 중국인의 추방 정책이후 후임의 라온(Jose Raon 재임1765-1770)도 비 가톨릭 중국인추방정책을 이어받으면서 정책은 더욱 견고해졌으며 후임총독들도 이 사고를 이어 받았다. 55년이 지난 1810년에는 총인구 2,527,298 명중 인디오 즉 필리핀 원주민은 2,395,677명으로 전체인구의 94.8%를 차지하였으며 중국계 메스티조는 120,621명으로 전체인구의 약4.8%를 차지하였을 정도로 증가하였으나 순수중국인은 7,000명에 머물렀다(Austin Craig 1916). 그리고 약 60년이 지난 1877년의 중국계 메스티조의 인구는 290,000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여 필리핀전체인구의 5.2%로 증가하였고, 순수한 중국인은 23,000명 이었다. 1850년경에는 이미 중국계 메스티조의 경제력이 중국인과 스페인인의 경제력을 훨씬 상회하면서 필리핀경제력을 장악하기에 이르렀다(G. William Skinner 1996:57). 1875년 루손지역의 대규모농장 226개 가운데 165개는 중국계 메스티조가 소유하였고, 55개는 스페인계, 나머지 6개는 유럽계가 소유하게 되었다(박사명 1996:18).

박승우(2003:1-34)는 스페인식민지하 필리핀의 토착지배계급의 형성과정을 세계체제(world -system)로 개념화하여 식민지사회경제체제의 내적변화에 잘 적응한 중국계 메스티조가 토착지배계급의 핵심적 구성요소로 등장하였으며 스페인인들에게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토착 경제 집단으로 성장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이시기의 토착 지주계급으로서의 메스티조의 등장은 20세기의 필리핀의 재벌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전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계 메스티조의 증가는 그들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자본주의 경제에 미숙한 필리핀 인디오의 전통경제부문 과 서구자본주의에 익숙한 스페인사람의 근대경제부문은 직접거래하기가 어려웠으므로 이에 이윤

이 높은 중간 매개인 으로서 등장과 관계가 깊다(이덕훈 1997:326-327).

요시하라 구니오가 말하는 모조자본주의(ersatz capitalism)는 동남 아시아에서의 화인 자본의 역할과 분리하여 생각될 수 없다(Kunio Yoshihara 1988). 특히 현재에도 주로 3차 산업에 집중되는 필리핀의 자본의 성격과, 필리핀의 화인 사업가들이 대개 3차 산업에서 활동 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스페인식민지시대의 중간 매개상 으로서 자리 잡은 중국인의 무역, 유통 등의 사업 환경이 지금 까지 그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 2. 중국계 메스티조의 지도자적 역할

중국계 메스티조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중국이 아닌 가톨릭으로 대표되는 스페인의 문화 세계와 필리핀에 한정하여 독자의 문화세계양식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문화 양식은 필리핀에서의 일종의 도시적 생활의 모델이 되어 일반적으로 필리핀인의 이상적 생활스타일로서 받아들여졌다(Edger Wickberg 1964:62-100). 한편, 메스티조는 경제계에서만 아니라 정치문화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근대적국민국가의 형성에 있어서 스페인의 남아메리카 식민지에서 남아메리카에서 태어난 백인들인 크리오요(Criollo)가 지도자적 역할을 하여 독립을 이루었지만, 중국계 메스티조도 필리핀의 국민국가체제의 생성에 있어서 중남미제국의 크리오요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사료된다(Benedict R Anderson 1998: 24-36).

중국계 메스티조는 이시기 여러 종류의 의미에서 문화의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중 가장 중심적인 것은 가톨릭의 수용에 있다. 이점은 갈레온 무역이 존속하고 있던 마닐라보다도 갈레온 무역이 폐지되어 중국계 메스티조의 인구가 증가했던 세부와 원래 마닐라 갈레온 무역이 행해지지 않았던 지방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

다. 16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서 무역항으로서의 세부(cebu)의 흐름을 보면 세부의 추락 그리고 세부의 행정관에 의한 무역의 독점은 중국인(Sangley)과 세부 원주민(인디오)의 인구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1595년에 200인을 헤아렸던 중국 상인은 약 150년 뒤인 1740년에는 25인으로 감소했다(Bruce L. Fenner 1985:40).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중국계 메스티조는 1740년에 100인으로 증가하고 있다. 1830년대의 중국인거주인 파리안(parian)의 인구는 중국계 메스티조가 약 1,200명으로 증가했지만, 중국인은 겨우 6명, 스페인인과 스페인계 메스티조는 30명 정도 였다.

세부(cebu)의 종교계에 있어서도 메스티조의 대두는 메스티조의 성직자의 등장에도 보인다. 1779년 세부의 교구에는 25인의 재속 신부 중 3명이 메스티조였다. 1830년대에는 61명중 24인이 메스티조로 증가했다. 또한 1834년의 세부 대교구의 상위6명의 성직자 중에 4 명을 메스티조가 차지하였다(Michael Cullinane 1982: 257). 이러한 움직임은 경제뿐만 아니라 종교에까지 진출하여 명실공이 스페인 식민지정부의 초기의 ‘비 신앙 중국인’에서 ‘진실한 신앙인’으로서의 중국계 메스티조가 등장하고 있었다. 가톨릭의 수용이외에도 중국계 메스티조는 다양한 문화를 매개했다. 18세기 전반, 세부지역 섬들의 교역은 스페인에서 파견된 행정관에 의해 독점되었고 스페인계주민과 세부원주민이 참여할 여지가 없었지만 중국계 메스티조는 시장(市長) 등 관료와 힘을 합쳐 소규모교역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이 다루었던 교역상품 중에는 양초, 담배, 사향, 설탕과 함께 멕시코를 원산지로 하는 카카오가 포함되었다(Michael Cullinane 1982: 260).

특히 1863년의 교육법령(education decree)이후, 예수회 선교회의 지도하에 남성 교사를 위한 사범학교의 설립 등이 이루어져 스페인 메스티조, 중국계 메스티조 그리고 원주민의 부유층 자제들 중에서

스페인인 중심의 관료제가운데 매개적 역할을 하는 변호사, 의사, 교사, 기사 등이 나타나면서 필리피노 지식인층(Ilustrado)이 형성되었다. 필리핀사회에서의 중산계급층은 자신들의 자제들을 스페인어에 의한 고등교육을 받게 되면서 스페인유학 등 해외유학의 경험자들도 등장한다(松永揔也 2009:80) 이시기의 중국계 메스티조는 경제는 물론, 종교, 문화까지도 장악하게 되어 스페인식민지의 필리핀사회의 매개자 및 안내자로서 수요와 공급에 관한 정보를 장악하여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로서의 위치로 변하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으로 취급받던 중국인이 脫중국화, 가톨릭화하면서 중국인에서 특별한 필리핀인으로서 변화한 것은, 영국의 말레이식민지시대의 중국 부계혼혈 화인인 바바와 네덜란드의 식민지시대의 인도네시아의 혼혈화인은 뿌라나칸,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지배시의 베트남의 혼혈화인인 민형(明卿)에서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것이었다. 즉, 필리핀의 중국계 메스티조는 언젠가 중국으로 돌아가려는 화교가 아닌 영원한 정착자로서의 ‘특별한 필리핀인’으로서 필리핀을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필리핀의 부당한 취급에 항의 하여 후일에 호세 리잘(Jose Rizal), 에밀리오 아기날도(Emilio Aguinaldo), 안드레스 보니파시오(Andres Bonifacio) 등의 중국계 메스티조는 필리핀인으로서 스페인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립 국가를 이루려고 필리핀 내셔널리즘을 주도하였다(Edgar Wickberg 1964:66).

그러나 뿌라나칸과 룩찐, 민형등의 타국 동남아시아의 중국계 메스티조 등은 중국인으로서 식민지중간층으로서 경제력을 축적하는데 만 만족하였을 뿐 국가의 지도자로서 성장은 어려웠다. 그들은 특별한 필리핀인처럼 국적을 취득하기 어려웠으며 메스티조가 되어 국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슬람이나 불교의 지도자는 될 수 없었고 정치인으로서도 성장하기 어려웠다. 이것을 보면 필리핀의 중국계 메스티조가 필리핀의 근대사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

에 있었던 점은 특이할 만하며 이는 특별한 외국인에서 특별한 필리핀으로의 전환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중국인이민은 가톨릭개종 후에 필리핀인으로서의 대우를 받고 필리핀에서의 새로운 계층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 중국계 메스티조 그룹이 후일 필리핀의 중국계를 대표하는 그룹은 물론, 필리핀근대사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V. 결론

필리핀은 스페인 통치 전 에도 중국인, 아랍인등과의 무역으로 중국 상인이 단기적으로 체류한 적이 있었으나, 마닐라-아카폴코 로 이어지는 마닐라 갈레온 무역으로 인해 중국인의 정착이 대량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마닐라 갈레온 무역은 단순한 스페인식민지 필리핀과 스페인식민지인 멕시코의 아카폴코 간의 무역이 아니고 銀의 수요에 목말라했던 중국까지 포함된 복건-마닐라-아카폴코로 이어지는 세계무역의 탄생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마닐라 갈레온 무역은 세계사에서 등장하는 비단과 은의 교역으로 중상주의의 스페인의 제국주의의 발상과 남미, 아시아가 함께 이루어진 무역이다. 즉, 마닐라 갈레온 무역은 단순한 스페인식민지내의 교역이 아닌 글로벌화를 이룬 초기적사건이며 중국인이 참가하면서 유럽인, 아시아인, 남미인의 총체적으로 통합된 세계무역의 흐름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비단을 가져다준 복건과 마닐라간의 중국범선무역은 중국인의 정착과 갈등이 시작되어 약 20,000명이 체류했으나, 스페인정부는 많은 중국인들을 위협으로 간주하여 5번의 대량학살이 이루어지

기도 하였다. 또한 중국의 청나라의 천계령(遷界令) 포고 이후, 중국 범선무역이 주춤하였지만, 천계령이 해제된 이후에는 중국인의 정착에도 역사적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예를 들면, 중국 상인이 복건-마닐라 교역 때문에 중국범선무역을 위해 도항하여 중국인 이민이 되었지만, 증가되는 중국인이민은 스페인정부의 불안과 압박으로 이어져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거주자에게 정책적 대응하여 강제적으로 가톨릭을 의무화 하게 한다. 종교적으로 스페인정부에 협력한 중국계 메스티조는 이미 불교나 유교의 중국아이덴티티를 버리고 탈(脫) 중국화 하여 스페인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1755년의 아란디아 총독의 비가톨릭교도 중국인의 추방정책은 스페인령 필리핀의 중국인은 전부 가톨릭화 되어 중국인에서 중국계 메스티조(필리핀인)로 전환하게 되는 역사적 사건이다.

즉, 외국인으로 취급받던 중국인이 가톨릭을 믿는 새로운 필리핀인으로서 등장하게 된다. 가톨릭개종이후 필리핀의 중국이민사회에서 중국계 메스티조라 불리는 새로운 계층이 탄생하였는데 이는 마닐라 갈레온 무역의 중심이었던 비개종 중국인추방과 깊은 관계가 있다.

마닐라 갈레온 무역의 비단 공급자로서 등장한 중국인은 스페인 정부의 정책으로 존재할 수 없었고, 중국계 메스티조가 아니면 필리핀에 정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필리핀의 경제는 중국계 메스티조가 장악하게 되었다. 아울러 식민지 사회경제체제의 변화에 잘 적응한 중국계 메스티조가 토지경영에 관심을 갖게 되어 토착지배계급의 핵심적 구성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19세기 초 중국계 메스티조가 중산층으로 등장하면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 변호사, 의사, 교사, 기사 등이 나타나면서 필리핀도 지식인층이 형성되었다. 이시기의 중국계 메스티조는 경제는 물론, 종교, 문화까지도 장악하게 되어 스페인식민지의 필리핀사회의 매개자 및



안내자로서 수요와 공급에 관한 정보를 장악하여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로서의 위치로 변하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으로 취급받던 중국인이 특별한 필리핀인으로서 변화한 것은, 다른 동남아 국가의 혼혈화인인 바바와 뿌라나칸, 민형(明鄉)에서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것이었다. 즉 필리핀의 중국계 메스티조는 언젠가 중국으로 돌아가려는 화교가 아닌 영원한 정착자로서의 ‘특별한 필리핀인’으로서 스페인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리핀 내셔널리즘을 주도하면서 경제계, 정치계, 사상계 등 모든 부문에서 지도자로 등장하게 된다.

**주제어:** 마닐라 갈레온 무역, 은과 비단의 교역, 화교, 중국계 메스티조, 스페인 식민지

### 〈참고문헌〉

- 김동엽. 2011. “15-16세기 동남아 해상무역의 특성과 변화: 포르투갈의 진출과 영향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연구』 21(2): 1-23
- 박사명. 1996. “식민지 사회의 계급형성: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역사적 비교”. 『동남아시아연구』 4: 3-28.
- \_\_\_\_\_. 1999. "필리핀 화인사회의 구조와 위상" 『동남아시아연구』 7:185-211
- 박승우. 2003. “스페인식민지배하의 필리핀의 형성과정.” 『동남아시아연구』 13(1): 1-17
- 서성철. 2013. “삼각무역: 아카폴코 갤리언 무역의 탄생과 몰락.” 『Asian journal of latin Studies』 26 (2): 131-157.
- 유인선. 1990. “필리핀의 역사와 문화- 필리핀근대사의 성립과 전개과

- 정 -” 『아세아연구』 40(1): 305-346.
- 이덕훈. 1997. "화교의 자본형성과정과 경영전략." 『경영사학』 16: 303-328
- \_\_\_\_\_. 1999. "필리핀화교의 정착과 적응." 『아시아연구』 1(1): 21~51.
- \_\_\_\_\_. 2014. "글로벌무역으로서의 마닐라 갈레온 무역과 중국인과 일본인의 교역" 『일본 문화학보』 62: 259-286.
- 필리핀개황. 2011. 외교통상부. 문서번호11-1260000-000212-14.
- 山田義裕. 2011. "マニラ・ガレオン." 『日本海事史學會』 2011年9月例会..
- 池端雪浦. 1970. "フィリピンにおけるそのカルチュア經濟成立の史的考察—マニラ開港を端緒とする—." 『アジア經濟』 11-4
- \_\_\_\_\_. 1977. 生田滋, 『世界 現代史 -東南アジア現代史 II』, 山川出版社:33
- 池端雪浦編. 1999. 『東南アジア史II 島嶼(とうしょ)部』 山川出版社: 100.
- 伊藤禎一. 1992. 『東南アジアの經營風土』, 白桃書房.
- 可兒弘明. 斯波義信. 游仲勳編. 2002. 『華僑・華人事典』 弘文堂.
- 増田義郎. 1999. "ポルトガルとアジア" (1) 『國際關係紀要』 第8卷第2号, 亞細亞大學國際關係研究所:35-37
- 柳沼孝一郎. 2012. "スペイン帝國の太平洋霸權確立～海外領土擴張政策と東アジア進出の歴史背景～", 『神田外語大學紀要第24号.』 203-223.
- 小林 正典. 2013. "フィリピンの中國系移民と中國との關係: 福建から香港ルートへの傾斜と教育・言語の問題を中心に." 『和光大學現代人間學部紀要. 6卷. 97 -113.
- 成田, 節男. 1942. 『華僑史.』 螢雪書院: 49.

- 庄國土. 2001. 『華僑華人与中國的關係』廣東高等教育出版社:40-45
- \_\_\_\_\_. 玉置充子譯. 2011. “1970-1990年代の晋江籍フィリピン華人社団の変化および原籍地との關係,” 『中國・アジア研究センターWorking Paper Series No.33』: 1-17.
- 關哲行. 立石博高. 中塚次郎. 2008. 『スペイン史1. 2』山川出版社.
- 宮原 曉. 1997. “チノイ』をめぐる想像と挑戦——中國系フィリピン人とフィリピン國民國家の關係をめぐって” 『社會人類學年報』 23, pp125 - 139.
- \_\_\_\_\_. 2013. 『現代中國に關する13の問い—中國地域研究講義一.』 “第5章『華僑』『華人』と東アジアの近代.”
- 周南京. 1993. “中國和菲律賓的歷史關係”吳文煥編 『菲律賓與華人』, 菲律賓華裔青年聯合會:83-84
- 岩波講座. 2001. 『東南アジア史第4卷』岩波書店:
- 菅谷成子. 2000. “18世紀中葉フィリピンにおける中國人移民社會のカトリック化と中國系メスティーソの興隆” 『東洋文化研究所紀要』 139冊,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 \_\_\_\_\_. 2012. “トンドの謀議をめぐる—考察—スペイン領フィリピン成立の斷章” 『愛媛大學 法文學部論集人文學科編』 Vol.32
- \_\_\_\_\_. 2003. “18世紀末葉のスペイン領フィリピン--マニラ市の「パリアン再建」建議をめぐって” , 『愛媛大學法文學部論集人文學科編』, 15号, 2003 :47-70
- Adam Smith. 1776.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2 *Indianapolis: Liberty Fund*, 1981.
- Alfred Crosby. 1972. *The Columbian Exchange: Biological and Cultural Consequences of 1492*(Contributions in American Studies#2)

Greenwood Press.

- Andre Gunder Frank. 1998. *ReOrient: Global Economy in the Asian Ag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Anthony Reid (ed.). 1996. *Sojourners and Settlers : Histories of Southeast Asia and the Chinese*. St. Leonards : Allen & Unwin.
- Antonio Morga, History of the Philippine Islands , *Firipin shotōshi* 神吉敬三 譯, フィリピン諸島誌, 岩波書店, 1973
- Austin Craig. 1916. *The Former Philippines Thru Foreign Eyes*. Project Gutenberg Release #10770.
- Alberto Santamaria, OP. 1966. “*The Chinese Parian (El Parian de los Sangleyes)* ” in Alfonso Felix, Jr. ed., *The Chinese in the Philippines, 1570 - 1770*. Volume I. Edited by Alfonso Felix Jr. Manila: Solidaridad Publishing House: 77-78.
- Benedict Anderson, 1988. "Cacique Democracy in the Philippines," *New Left Review* 169 (May/June 1988, pp3-33.
- Bruce L. Fenner. 1985. *Cebu Under the Spanish Flag (1521- 1896): An Economic and Social History*, Fenner, Bruce L., San Carlos Publications, Cebu City, Philippines. 46.
- Chuan, Hang-Sheng. 1969. "The Inflow of American Silver into China from the Late. Ming to the Mid-Ch'ing Period,"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Chinese Studies of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Kong* 2: 61-75.
- \_\_\_\_\_. 1975. "The Chinese Silk Trade with Spanish-America from the Late Ming to the Mid-Ch'ing Period," in *Studia Asiatica Essays in Asian Studies in Felicitation to the Seventy-fifth Anniversary of Professor Ch'en Shou-yi*, ed. Laurence G. Thompson (San Francisco: Chinese Material Center).

- \_\_\_\_\_. 2001. "The Chinese Silk Trade with Spanish-America from the Late Ming Period to the Mid-Ch'ing Period." In *Studia Asiatica Essays in Asian Studies in Felicitation to the Seventy-fifth Anniversary of Professor Ch'en Shouyi*, ed. Laurence G. Thompson, 99-117. San Francisco: Chinese Materials Center.
- Carla Rahn Phillips. 1990. "The Growth and Composition of Trade in the Iberian Empires, 1450-1750," in James Tracy, ed., *The Rise of Merchant Empires: Long-Distance Trade in the Early Modern World, 1350-1750*.
- Charles Boxer. 1958. "The Manila Galleon: The lure of silk and Silver." 1565-1815. *History Today*. 8.
- Dennis O. Flynn and Arturo Giráldez. 2006. "Globalization Began in 1571", in Barry K. Gills and William R. Tompson, eds., *Globalization and Global History*, London.
- \_\_\_\_\_. 1995. "Born with a 'Silver Spoon': The Origin of World Trade in 1571," *World History*. 6(2): 201-221.
- Debin Ma. 1999. "The Great Silk Exchange: How the world was connected and developed" in *Pacific Centuries: Pacific Rim History Since the Sixteenth Century*, eds. D.O. Flynn, L. Frost, and A.J.H. Lantham. (New York: Routledge).
- De Viana. Lorelei D. C. 2001. *Three Centuries of Binondo Architecture, 1594-1898: A Socio-Historical Perspective*. España, Manila: University of Santo Tomas Press.
- Edgar Wickberg, 1964. "The Chinese Mestizo in Philippine History," *Journal of Southeast Asian History* vol 5.no1: 8.
- G. William Skinner. 1996, *Creolized Chinese in Southeast Asia*, in: *Sojourners and Settlers: Histories of Southeast Asia and the*

- Chinese ,ed. Anthony Reid, St. Leonards(Australia): Allen&Unwin. pp51-93.
- George Bryan Souza. 1986. *The Survival of Empire: Portuguese Trade and Society in China and the South China Sea, 1630-1754*,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uillermo Ruiz- Stovel. 2009. *Chinese Merchants, Silver. Galleons, and Ethnic Violence in. Spanish Manila, 1603-1686*. Análisis 47, vol. 12: 47-63.
- Hamashita Takeshi. 1994. "The Tribute Trade System and Modern Asia". In Japanese Industrialization and the Asian Economy, ed. by A. J. H. Latham. London: Routledge: 97.
- John Leddy Phelan. 1959. *The Hispanization of the Philippines: Spanish Aims and Filipino Responses, 1565- 1700*.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78.
- John R McNeill. 1996. *Islands in the Rim: Ecology and History In and Around the Pacific, 1521-1996*.
- John Foreman, 2010. *The Philippine Islands: Em Esber Blog2:The Chinese in the Philippines during the Spanish era: 4*.
- kim Dong-yeop. 2012. *The Galleon Trade and Its Impact on the Early Modern Philippine Economy*, 동서연구 24(1): 55- 84.
- Leslie E. Bauzon. 1970, "Deficit Government: Mexico and the Philippine Situado (1606-1804)". Duke University: Ph.D. dissertation.
- Lourdes Diaz-Trechuelo. 1966. *The Role of the Chinese in the Philippine Domestic Economy (1570-1770)*, in: Alonso Felix, Jr., ed., *The Chinese in the Philippines 1570-1770*, vol. I, Manila : 206-208.
- Li, Ling. 1997. "Mass Migration Within China and the Implications for Chinese Emigration" in Paul Smith (Ed.)(1997): Human

- Smuggling: Chinese Migrant Trafficking and the Challenge to America's Immigration Tradition. Washington: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3-47.
- Min Zhou. 2006. "The Chinese Diaspora and International Migration," *Social Transformations in Chinese Societies*, 1: 161-190.
- Ng Chin-keong. 1971. "The Fukienese Maritime Trade in the Second Half of the Ming Period — Government Policy and Elite Groups' Attitudes," *Nanyang University Journal*, 5, pt. 2: 81-100.
- Nobert Dannhaeuser. 2004. *Chinese Traders in a Philippine Town*. Quezon City: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
- Onofre D. Corpuz. 1997. *An Economic History of the Philippines*, University of Philippines Press: PNA(Philippine National Archives), Gremios de naturales, mestizos, y chinos, 16-5-5.
- Overseas Compatriot Affairs Commission 2009. R.O.C.(Taiwan). 中華民國(台灣)僑務委員會. 2009. 1.31.
- Robert R. Reed. 1967. "Hispanic Urbanism in the Philippines: A Study of the Impact of Church and State", University of Manila: 137.
- Richard Chu, 2002. "The Chinese and Mestizos of the Philippines: Towards a New Interpretation" , *Philippine Studies Journal*, 50, pp327-370.
- Richard von Glahn. 1996. *Fountain of Fortune: Money and Monetary Policy in China, 1000-1700*,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27.
- Rafael Bernal, 1966. "The Chinese Colony in Manila 1570-1770", in Felix, Alfonso Jr., ed.(1966), *The Chinese in the the Philippines, 1570-1770*. Volume I. Edited by Alfonso Felix Jr. Manila: Solidaridad Publishing House:65.

- Salvador P Escoto. 2000. "A Supplement to. the Chinese Expulsion from the Philippines." 1764-1779. PHILIPPINE STUDIES 48(2).
- Shih Min-hsiung. 1976. "The Silk Industry in Ch'ing China. Tr. Sun Eduzen. Michigan Abstracts of Chinese and Japanese Works on Chinese History", no. 5. Ann Arbor, .
- Salvador P. Escoto. 2000. *A Supplement to the Chinese Expulsion from the Philippines, 1764-1779*. Philippine Studies vol. 48, no. 2: 214-216.
- Thomas Barker. 2004. "Silver, Silk and Manila. Factors Leading to the Galleon Trade, in: I.D.E.A.S. Journal", =  
<http://www.paclas.org.ph/PAPERS/Tremml.pdf>
- Guillermo Ruiz-Stovel. 2009. *Chinese Merchants, Silver, Galleons, and Ethnic Violence in Spanish Manila, 1603-1686*. Análisis 47, vol. 12: 58-59.
- Yuan-li Wu and Chun-hsi Wu. 1980.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east Asia: The Chinese Dimension*. Stanford, Calif.: Hoover Institution Press.
- William S. Atwell. 1977. "Notes on silver, foreign trade, and the late Ming economy", Ch'ing-shih wen-t'i 8.3: 1 -33.

(2014.10.15투고, 2014.11.14심사, 2014.11.22게재확정)



<Abstract>

## Appearance and Role of Chinese Mestizo during Spanish Colonial Philippines

LEE Duk Hoon  
(Hannam University)

Chinese merchants were around before Philippines became a Spanish colony, but became prominent during the Manila Galleon Trade. The Manila Galleons (Galeón de Manila) were Spanish trading ships that sailed once or twice per year across the Pacific Ocean between Manila in Spanish East Indies (present day-Philippines), and Acapulco, New Spain (present-day Mexico). The trade can be called global since it involved Chinese silk and Spanish silver from China and Latin America.

This study analyzes the role of merchant activities of ethnic Chinese in the Manila Galleon Trade of 1571-1815 during Spanish Colonial rule. Economic activity during the period suggests that the Chinese Mestizo were capable of distribution, trade, and finance and that they acted as mediators between the farming and fishing Indio (native Filipinos) and the trading and financing Spanish. From the Spanish Government's perspective, the Chinese (special foreigners) were able to assimilate into the Chinese Mestizo. They later adapted to the Catholic culture of Spain to emerge as a leading group of the Philippines.

280 동남아시아연구 24권 4호

**Keywords:** Manila Galleon Trade, Chines silk and Spanish silver,  
Ethnic Chinese, Chinese Mestizo, Spanish Colonial rule